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한국 정당은 '자산 부자'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67억 건물과 125억 토지를 보유한다. 예금과 현금으로 450억 8919만원에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2억 5000만원이다

국민의힘은 215억 건물과 642억 토지를 갖고 있다. 예금과 현금으로 72억 601만원에 11억 4000만원의 임대료 수입도 있다. 모두 여의도 소재 부동산의 공시지가 기준이다.

'이중 지급'의 결과다. 경선과 선거 보조금에 선거비용 보전까지 추가된다. 2024년 4분기 경선보조금이 민주당 54억원 국민의힘 52억원이다. 경선보조금은 선거가 있든 없든 정당에 지급되지만 선거 때는 보조금이 추가된다. 작년 총선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9억원과 17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양당은 선거비용도 전부를 세금으로 보전 받는다. 선거보조금도 받고 선거비용도 돌려받는 것이다. 선관위도 바로 잡자는 입장이지만 양당 협치는 요지부동이다.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은 평균 158억원 국민의힘은 평균 14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선거를 치를수록 정당은 부자가 된다. 양당의 자산(대출) 증식(정산) 속도는 기네스북 수준(?)이다. 2015년 민주당의 재산 총액은 77억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매우 익숙한 통증이다. 아랫배가 빠근한 것이 마치 크기는 한 주먹 정도 되지만 수백킬로는 묵직한 돌덩이가 왼쪽 아랫배에 올려진 듯했다. 통증의 느낌으로 보아 이견 요도로 빠져 나가지 못할 정도로 큰놈일 확률이 크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까지 고생하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큰지막한 돌이 나왔다. 세로 약 1센티, 가로 0.7센티 정도. 위치는 콩팥 입구. 이 정도면 요로 결석 중에서도 상당히 큰 편이다.

대개 이런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로 돌을 깨지만 나처럼 혈전용해제를 상시 복용하는 경우 직접 내시경을 요관으로 넣어서 돌을 제거하는 요관경하배석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선 20일에 관을 요관에 삽입하고 27일 시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시술을 위해 26일부터 2박3일간 입원해야 한다.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다. 뭔가 복잡하다.

20일,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요관에 관을 삽입하였다. 관 삽입 시술을 마친 후 절로 돌아온 시각은 대략 6시 정도. 이때부터 약광같은 첫날 밤이 시작되었다. 거의 자지 못했다. 돌 때문에 아플 때와 같은 강도의 아픔과 소변 볼 때의 찌릿한 통증이 밤새 계속되었다. 어찌된 셈인지 조금의 소변도 참지 못해서 거의 한 시간마

기고



류기준
전남도의원(민주·화순2)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위기앞에 서 있다. 저출산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당장의 현실이며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영유아 시기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목받은 정책이 '꾸러미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시기에 방역과 소비 진작이라는 이중 효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 복지를 넘어 지역 농업 판로 확대라는 부가가치도 입증됐다. 전남도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계승·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2024년 1월 1일

혈세로 운영하는 ‘양당 정치’ 언제까지

8500만원이고 건물도 없었지만 10년 만에 657억 3100만원으로 8.4배 늘었다. 10년 전 445억 4600만원이었던 국민의힘은 지금 1198억 5400만원으로 2.7배 늘었다.

민주당은 2016년 193억원에 현재 당사를 매입했는데 이때 123억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국민의힘도 2020년 480억원에 당사를 구입하면서 320억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양당 모두 5년 안쪽으로 은행 빚을 전액 청산했다. '조물주 바로 밑이라는 건물주' 양당이다. 재원은 국민 세금과 당비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현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342억 5800만원 국민의힘은 205억 2700만원의 당비를 걷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으로 양당은 각각 438억 1000만원과 411억 5200만원을 받았다. 양당의 세금 의존은 구조적이다. 양당 재정 수입의 절반이 넘는다. 2024년 기준 민주당은 56.1%, 국민의힘은 66.8%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한다.

한국 정당은 '당원 부자'다. 민주당은 2024년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 약 122만명,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약 82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과 비교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은 25.6만→150.4만명,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37.8만→91.8만명으로 늘었다는 추정도 있다.

세계적 추세와 반대다. 대규모 전통적 당원의 쇠퇴와 느슨한 참여의 확장이 대부분이다. 양당의 당원 수 폭증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게 되는 까닭이다. 2023년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전체 당원은 512만 3000명이다. 2014년 243만명에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444만 9000명으로 2014년 270만 8000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히틀러의 나치당(900만)에 비유될 수의 당원 수로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양당 당원이다. 주요 선전국의

10배가 넘는다. 영국과 독일이 2% 일본이 1% 내외다. 중국(7%)보다도 3배 가량 높다.

건물주와 당원 부자의 정당 특히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당은 위험하다. 세금 의존이 커질수록 정당은 '국가화' 되어 당내 경쟁을 제한·안정화하려는 '카르텔 정당'화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정설이다.

개딸과 태극기 부대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구애가 과열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근본 배경이다. 강성 당원들에게 적하면 경선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할 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말이다. '정권래 당선'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선명성 경쟁'은 구조화된 부자 정당 카르텔의 완성을 상징한다. 상식을 벗어난 강성 지지층 중심의 극단화된 정치는 민주주의 후퇴의 지름길이다

국민 혈세로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면서도 양당은 당직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를 무시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70%+국민여론 30%',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80%+국민여론 20%'로 지도부를 구성한다. 권리당원과 책임당원도 양당 공식 당원의 1/5과 1/4 수준에 불과하다.

양당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은 소수가 독점하는 '사유화된 공기업'이다.국민 혈세를 쓴다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주주 자본주의의 혈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정당 재정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싫으면 받지 않으면 된다. 당원과 지지층 우선이라면 당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라.

보조금 비종단만큼 시민참여는 당심·민심 괴리의 완충판이자 공적 기구로서 정당에게 부여된 국민 책임실현의 가교다.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원한다.

나의 고통 보고서

다 소변을 봐야만 했다. 소변을 볼 때면 그냥 피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너무 아프니까 피가 쏟아져 나와도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그냥 있어도 아프고 소변을 보면 더 아팠다. 진통제를 먹어도 별 소용없었다. 둘째 날도 종일 통증과 시름하느라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셋째 날, 피오줌은 여전하다. 하지만 통증은 덜하다. 둘째 날까지는 소변 보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가능하면 수분 섭취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듯하여 콩팥 속의 피를 씻어내자는 생각에 차를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느낌인지 몰라도 피오줌의 검붉은 색도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넷째 날, 오후부터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튜브를 찾아 보기 시작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난 며칠동안 유튜브를 일체 보지 않았다. 커피도 마시지 않았다. 나흘동안 방구석에만 있었는데 답답하거나 심심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 참 신기하다. 오후 무렵, 지현이 찾아왔다. 몇 마디 말을 하긴 했지만 말하는 나의 시선은 혼자 독백이라도 하듯 시종 창밖을 향해 있었다. 말하고 나니 지친다. 이내 지현이를 돌려보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세상일에 관심이 없고 잠을 많이 잔다고 한다. 아픈 환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고통과 싸우는데 쓰다 보면 달리 여유가 없다. 그래서 깨어 있는 동안은 고통과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남은 시간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수면을 취하는 것이다.

관 삽입을 한 며칠동안 나의 일상은 잠시 정지되었다. 일에 대한 걱정도, 다른 이들과의 갈등도, 한여름

의 몽개구름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일없이 유튜브를 쳐다보는 것도, 뭘 먹을까 하는 고민도 없었다. 매순간 나의 몸과 마음은 본능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고통을 향하고 있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나의 관심 밖이었다.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일상을 우두커니 바라본다. 부질없고 하잘 것 없는 일상을 지탱하기위해 허비하는 엄청난 나의 에너지를 생각한다. 짜증내고 심심해하고 기뻐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마워하는데 쏟아붓는 그 많은 에너지를 생각한다.

어리석게도 지금껏 나는 그렇게 살아온 일상에 너무나 익숙했다. 익숙한 나머지 일상의 세세한 면면을 직시하지 못했다. 다른 삶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수행조차 그런 일상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부처님은 일상에 쏟아붓는 이 에너지를 오묘하게 수행으로 돌렸다. 그리고 아픈 환자가 병마를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듯 번뇌를 뿌리뽑기 위해 목숨을 건 수행을 했다.

다시 돌아가는 일상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듯 일상에 완벽하게 적응할 것이다. 그리고 아팠던 시절의 그 고군분투와 치열했던 집중을 잊을 것이다. 대신 일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틀 뒤면 시술을 한다. 전신마취까지 한다고 하니 말만 시술이지 수술이나 진배없다. 회복하는 기간동안 통증이 만만찮을 것 같다. 다시 또 그 시간들을 견딜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다. 그러나 투병 기간 동안의 고군분투와 치열했던 집중을 이제는 잊지 않으려 한다. 시술이 잘 끝나면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전남 임산부 꾸러미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 6천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축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으며 수혜자는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중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강점을 살려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도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가 지 지원을 확대해 출산 전 단계부터 건강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농업·복지·보건이 연결되는 새로운 융합형 정책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했던 지인에 따르면 구매 가능한 품목이 기대보다 적고 구성이 단순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에 가격이 시중보다 다소 높게 책정돼 가격적 정성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타 시도 맘카페 등에서도 이 문제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품목 불균형, 유통기한 압박, 포장 부실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이러한 사안을 참고해 품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격 구조를 합리화한다면 수혜 가정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끌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아가 사업의 본래 취지인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민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피드백 채널을 강화한다면 품질·배송·가격·구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사업의 신뢰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임산부 꾸러미’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잇는 사회적 가교이자 출산과 양육을 돕는 실질적 생활 정책이다. 여기에 품목 다양화와 가격 합리화라는 두 축을 보완한다면 전남의 대표 복지·농업 연계 모델로서 전국적 벤치마킹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만족도 향상을 넘어 전남도가 ‘출산·양육 친화 1번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체감이다. 수혜자가 실질적 혜택을 느낄 때 정책은 생명력을 갖는다. ‘임산부 꾸러미’가 전남의 자부심이자 전국적 신뢰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개선을 통한 큰 변화를 기대하며 전남도가 그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

社說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확인한 균형발전 의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명확한 국정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취임 후 한 달 만에 열린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국정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100일 기자회견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안인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검찰 개혁, 여야 및 당정 관계 등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역 입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방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이란 대통령의 신념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는 진단은 정확했다. 한 곳, 즉 수도권에 집중한 '불균형 성장 전략'은 이제는 한계에 왔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 성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지역민은 없

을 것이다.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을 위해 제정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은 물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는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균형발전 영향을 평가하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은 파격적이기까지 했다. 좀 더 길게 볼때 지방에 대규모 도시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언도 지방 발전을 통한 균형 발전 의지를 보여줬다.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아동수당과 지역화폐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시행이 이어지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어 실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과실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이주노동자 등치는 불법 브로커 근절해야

취업 알선을 대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청기는 불법 브로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조선 취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고품값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E-7(특정활동 비자)을 발급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브로커에게 1인당 1600여 만원을 건넸고 대한조선 직원에겐 7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브로커와 조선소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2명은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한 브로커와 국내 고용주의 조직적 착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력 송출을 맡은 브로커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

는 회사의 불량한 관계자가 결탁해서 이뤄지는 구조로 해당 회사의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처럼 해당 회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전남도와 노동부도 피해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등치는 불법 브로커는 비단 산업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번기 농촌 인력의 주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송출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가장 큰 전남은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치기 좋은 곳이다. 계절근로자의 등골을 빨아먹는 브로커를 근절하려면 이주노동자 송출을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관여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뽑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無等鼓

양궁하면 한국이다. 한국 양궁하면 우선 떠오르는 선수 중 한 명이 김우진일 것이다. 총복제고에 재학 중이던 2009년 전국체전에서 12발의 화살을 과녁 한 가운데 꽂아 넣으면서 17살에 세계신기록 보유자가 됐다. 이후 그가 걸여 온 국가대표의 길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는 한국 국가대표 선발이다. 국가대표 선발전 11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그는 올림픽에서만 무려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우리나라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

가장 먼저 열린 혼성전에서 김우진은 '광주의 신궁' 안산과 호흡을 맞췄다. 고향에서 열린다는 세계 대회에서 안산은 부담감 때문인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두 사람은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김우진은 바로 이어 남자 단체전에 출격해서 이우석, 김제덕과 금메달을 썼다. 회극으로 끝난 하루였지만 이날 오전 김우진은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단체전 메달 결정전에 앞서 남자 개인전 예선전이 펼쳐졌다. 혼성 대표팀을 뽑는 예선 라운드에서도 1위를 했던 만큼 사람들은 '3관왕' 기대감으로 김우진을 지켜봤다. 결

이스지만 사실 당연한 것은 없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결과 때문이다. 스포츠를 드라마에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에서도 김우진은 드라마를 썼다. 비극과 희극을 오가는 주인공이었다.

지난 10일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 선수권대회에서는 3개의 금메달이 나왔다. 이날 리커브 총복 단체전 메달 결정전이 진행되면서 혼성·남자·여자 단체전의 금메달 주인공이 탄생했다.

/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wool@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